

올해 광주시 최고 정책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선정

광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

시민·전문가 평가단 등 330명 참여 총 15개 후보정책 대상 현장 심사 2위엔 ‘친환경자원회수시설’ 꼽혀

광주시민들이 올해 광주시의 최고 정책으로 ‘24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뽑았다.

광주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가 올해 추진한 정책 중 15개를 선별해 시민들이 평가, 우수정책 10개(올해의 베스트 10)를 최종 선정했다.

평가 작업은 치열했다. 최종 결선에 오

른 15개 정책을 추진한 과정에서 나와 한해 동안의 실적과 추진 상황을 홍보했고, 이 중에는 인형탈을 쓰고 나오는 등 평가단의 눈을 즐겁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330여명의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 앞은 냉정하게 평가를 이어갔다.

대망의 1위는 공공보건의료과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함께였다. 이어서 △2위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친환경자원회수시설(소각)’ △3위 돌봄정책과의 ‘“뚝뚝!! 안녕하세요” 사회관계돌봄으로 만드는 고독사 없는 광주’ △4위 경제정책과의 ‘부담은 덜고, 매출은 늘리고, 지역경제는 살리는 광주상생카드’ △5위 도로과의 ‘제2순환도로,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합니다’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 주로 선택됐다.

이밖에 △6위 신활력총괄관, 관광도시

과, 도시계획과 ‘대한민국 NO.1 광주 복합쇼핑몰 이제는 됩니다!’ △7위 녹지정책과 ‘광주호 호수생태원 품격상승! 우리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레벨업’ △8위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상수관로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9위 여성가족과 ‘아이키움 ALL IN 광주, 가족지원 4대케어’ △10위 도시공원과 ‘새롭게 태어난 24개 공원, 짙짙 공원으로 도시 만들겠습니다’ 순으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우수정책 선정 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해 기존 연말에 1회 실시하던 베스트 정책 선정을 연중 지속해 시민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꿨다.

이날 발표된 15개 후보정책은 지난 4월부터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ON을 통한 시민 설문조사, 5월 개최된 시민의 날 현장

평가, 10~11월 지역사회리더 설문조사 등 시민들에게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 선정된 우수정책이다. 경진대회에서는 발표부서와 시민 평가단, 전문가 평가단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 직후 전자투표기를 통해 점수가 매겨지는 현장 심사가 이뤄졌다. 사전평가 점수와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전문가 평가단으로 참여한 설선미 호남대 교수(행정학과)는 “시민, 공공, 민간의 영역이 지역 현안을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로컬거버넌스의 가치를 느끼게 됐다”며 “각 부서 실효성 있는 정책은 협력의 결실이 아닐까 싶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광주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앞으로 광주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 평가단으로 참여한 한 시민은 “뉴스나 신문에서만 보던 정책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으니 이해도 쉽고 광주가 얼마나 더 멋지게 바뀔지 기대도 된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날 선정된 10개 우수정책에 대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민심이 함께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시민과 전문가의 공정한 선택을 통해 스타정책으로 뽑힌 정책에 대해 많은 박수를 보내 달라”며 “공직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스타정책 말고도 광주시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피땀으로 시민행복을 위해 추진한 많은 정책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랑 함께 놀아요”

역사민속박물관, 7~8일 DJ센터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7일과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랑 함께 놀아요!’를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연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대중을 전사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부터 전시·포토존·퀴즈이벤트까지 한 곳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한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 전시회를 다시 보는 공간이 마련돼 전시 전경 사진과 영상, 패널, 도록 등을 축약해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체험프로그램은 ‘인동초 자수 손수건 만들기’, ‘인동초 그림책 만들기’, ‘인동초

그리기’ 등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별명인 ‘인동초’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또 ‘평화의 상징 비둘기 종이접기’, ‘태극기 십자수 체움’, ‘한반도 키링 만들기’, ‘노벨 평화상 메달 색칠하기’ 등 체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업적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위대한 사상가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을 골라 멋지게 (캘리그래피)로 작가가 엽서에 써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김대중을 전시 인증샷을 남기면 숨겨진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광주여행 친구 ‘오매나’와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인생 네컷을 남길 수 있는 포토박스가 마련돼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062-613-5364). 노병하 기자

광주시, 환경부 수도사업 운영평가 ‘우수’

식용수 위기대응 능력 등 호평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 주관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은 환경부가 수도사업자의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수도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수도사업 전반에 걸쳐 △일반분야 9개 항목(28점) △운영 및 관리분야 18개 항목(52점) △정책분야 2개 항목(20점) 등 3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는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능력 제고, 노후 수도시설 정비, 정수장 운영의 전문가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보유 준수, 소속 직원들의 수도분야 법정교육 준수율 향상, 지방상수도 운영인력 근무여건 제고 등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과 음용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올해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실무자의 평가 지표 사전 검토, 분기별 평가자료 회의를 실시하는 등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 만전을 기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밀·보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13일까지 연장

파종 지연 따른 농가 요구 반영

전남도는 가을철 잦은 호우로 밀, 보리, 귀리 등 파종이 지연돼 맥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6일에서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맥류 등은 파종하고 출현율이 80%를 넘어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잦은 비로 맥류 파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가에서 가입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반영, 가입 기간을 연장했다. 맥류 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지대장, 농지 지번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통합돌봄 2024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광주다움 통합돌봄 2024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5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사례를 발굴·확산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주최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특산물 디저트’ 연말 추천 관광지 선정

해남·영암·담양·구례 4곳 추천 무화과샌드·고구마빵 등 인기

전남도가 지역 특산물로 만든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해남, 영암, 담양, 구례를 연말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영암 무화과샌드는 영암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를 버터크림과 함께 속을 채운 이색 디저트다. 영암에서는 무화과 본연의 단맛을 살린 무화과 스킨과 무화과 허니브레드, 무화과라떼 등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넓은 영암호 위를 건너는 솔라시도대교, 영암의 도기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영암도기박물관, 레이싱 드라이버 체험을 할 수 있는 국제카트경기장 등 역사부터 문화 자연 등 다채로운 여행지가 매력적이다.

해남 고구마빵은 해남에서 생산한 고구마와 해남쌀을 이용해 만들었다. 해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 덕분에 전국에서 맛과 품질이 뛰어난 고구마 생산지다. 고구마빵 앙금에는 고구마 외에 어떤 첨가물도 더하지 않아 식사대용으로 제격이다. 타르트, 피낭시에도 맛보며 해남 고구마의 매력을 다양하게 느껴볼 수 있다.

내륙끝자락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바다 풍경이 아름답고 두륜산 정상까지 탐방하는 두륜산 케이블카, 명량대첩을 기념하는 우수영 관광단지, 일출과 일몰 명소인 땅끝마을에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담양 현미 죽순빵은 특산물인 죽순을 다져넣고 현미로 반죽해 고소한 풍미와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대나무 케이크, 죽순 귀리 파이 등 다양한 대나무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24~25일엔 메타프로방스 일원서 ‘산타축제’가 열려 산타패러이드, 야경 포토존 등을 즐기며 낭만적 연말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대나무 숲 죽순원, 관방제림과 가사문학관, 소쇄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지가 많다.

구례 밀빵은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빵이다. 구례 밀은 품이 깊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화학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살린 건강한 디저트로 주목받고 있다.

통일신라 사찰 화엄사, 사계절 아름다운 천은사,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등 지리산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명소가 많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민 책읽기 ‘1년 6.4권’... 전국 평균 7.2권

광주연구원 ‘도서관·독서 현황’ 공공도서관 30개 등 총 731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책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은 1년에 6.4권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광주연구원이 발간한 ‘광주 도서관·독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6.4권, 도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는 12.4권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도서인구 1인당 독서권수는 2013년 17.1권에서 2023년 12.4권으로 4.7권 감소했다.

1인당 연간 독서권수는 전국 평균보다 0.8권보다 낮았다.

매체별로는 종이책이 8.7권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책 3.3권, 오디오북 0.4권이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독서장소는 집에서 가장 많았으며 출퇴근, 출장, 통학 목

적의 이동 공간 중 책읽기는 선호하지 않았다. 종이책 구입처는 인터넷서점이 32.5%로 전국 평균인 25.2%보다 다소 높았으며 무로나 대여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21.0%로 전국 평균인 15.8%보다 높았다.

광주지역 도서관은 731개로 공공도서관 30개, 작은도서관 362개, 대학도서관 18개, 학교도서관 309개, 장애인도서관 1개, 전문도서관 10개, 교정시설도서관 1개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공공도서관은 7개 증가한 반면 작은도서관은 32개 감소했다. 최권범 기자